2007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장시광(경상대)

1. 들어가며
2. 단행본
3. 학위논문
4. 범주로 본 소논문
5. 새로운 자료
6. 나오며

1. 들어가며

2007년도의 고전소설 연구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활발한 편이었다. 연구서를 비롯하여 번역서, 교주본, 자료집 등의 단행본이 40여 권 정도로 다른 해에 비해 특히 많이 제출되었다. 학술지에 실린 논문 역시 그 관심 분야가 다양하여 소설의 기원으로부터 문헌학적 연구, 문체 검토, 서사구조, 주제, 모티프, 인접 장르와의 연관, 비교문학, 문화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편의 업적이 축적되었다. 학위 논문의 경우 석박사 논문을 통틀어 30여 편이 넘는 논문이 제출되었다. 단행본,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을 통틀어 총 220여 편이 넘는 양이다.

이 글에서는 2007년도에 제출된 업적을 개괄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연구사적으로 논할 만한 의의가 있는 업적과 주목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2. 단행본

연구서의 경우, <구운몽>의 계보와 사상,[1] 유통,[2] 전쟁 소재 소설,[3] 한

1) 설성경, 『구운몽의 통시적 연구』, 새문사, 2007; 유병환, 『구운몽의 사상적 실상』, 다래헌,

www.kci.go.kr

문소설[4] 등에 관한 내용을 실은 책이 제출되었다. 이외에 인문학이나 문화론과 연관시켜 학회에서 펴낸 책도 주목된다.[5]

2007년도에는 다른 해에 비해 주목할 만한 번역서가 상당수 출판되었다. 규장각 소장 <구운몽>을 교주하고 번역한 책[6]은 기존에 출판된 <구운몽> 교주, 번역서 중 전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정병욱・이승욱 본이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한자가 드러나 있어 현대 독자에게 낯선 점을 감안하여 현대 독자가 쉽게 다가서도록 배려를 하였다. 더불어 꼼꼼한 교주와 번역으로 기존 번역서에 나온 오류를 시정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문소설을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나온 일련의 책 역시 현대 대중 독자를 고려한 쉬운 번역과 학자를 위한 정확한 번역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7] 중국소설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중국소설의 한글 번역본을 교주하는 작업은 2007년도에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8] 이외에도 <삼한습유>, <배비장전>, <열녀춘향수절가>, <옥원중회연> 등의 번역이 이루어졌다.[9]

한문소설의 거의 모든 이본을 활자화하여 독자에게 제시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업적은 향후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듯하다. 특히 이본을 망라하였으므로 이본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

2)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 관계 연구』, 역락, 2007; 이민희, 『조선의 베스트셀러 : 조선 후기 세책업의 발달과 소설의 유행』, 웅진씽크빅, 2007.

3) 김경남, 『서사문학의 전쟁소재와 그 의미』, 보고사, 2007.

4) 권도경,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통속화의 한 경향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5) 국어국문학회 편, 『국어국문학과 인문학적 상상력』, 국어국문학회, 2007; 국제어문학회 편, 『국어국문학 연구의 문화론적 전망』, 보고사, 2007.

6) 김만중, 김병국 교주, 『(원문교주)구운몽』,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김만중, 김병국 역, 『(현대어역)구운몽』,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7) 박희병・정길수 편역, 『낯선 세계로의 여행』, 돌베개, 2007; 박희병・정길수 편역,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8) 박재연・이재홍 교주, 『셔한연의』, 학고방, 2007; 박재연・정승혜・이재홍 교주, 『동한연의』, 학고방, 2007; 王雪庵 편, 박재연・이상덕・이재홍 교주, 『수상신쥬광복지연의』 상하, 학고방, 2007.

9) 김기형 역주, 『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숙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김소행,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이금희 역주, 『열여춘향슈졀가』, 푸른사상사, 2007; 임인선 역주, 『(역주)옥원중회연』, 다운샘, 2007.

www.kci.go.kr

3. 학위논문

2007년에 고전소설 관련 박사논문은 10여 편 남짓 제출되었다. 문헌 관련 연구가 2편이고, 작품론이 4편, 모티프나 소재 연구 2편, 비교문학이 1편이며, 이외에 근대 소설의 형성 과정으로서 전통문학을 논한 것이 2편 정도 있다.

16세기 소설인 『기재기이(企齋記異)』에 관한 박사논문이 2편이나 제출되어 최근 16세기 소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엄기영은 『기재기이』의 창작방법을 면밀하게 다각도로 고찰하여 그간 『기재기이』 연구에서 소홀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였다.[10] 구체적으로는 수록된 네 작품의 문학적 배경을 고찰하고, 작품에 드러난 문체의 특성을 살폈으며 인물의 형상화 방법과 서사구성방식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재기이』는 작가 신광한의 유자(儒者)로서의 고민과 원망(願望)이 발현된 작품이라 하였다. 『기재기이』의 창작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한 이 논문은 창작방법의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작가의식까지 고찰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최재우는 『기재기이』의 장르적 특성을 논하면서 『기재기이』를 전기소설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전기(傳奇)로 보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11] 한국전기를 인물, 구조, 기법의 측면에서 정의[12]하고 『기재기이』는 이러한 한국 전기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그 변모된 양상을 밝혔다. 그 변모 양상으로서 전고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비현실성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 인물 간에 조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기재기이』에 이르러 중의적인 전고의 활용이 처음 시작되었고 인물 사이에 매개자가 개입된다는 점을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논문의 말미에는

10) 엄기영, 「<企齋記異>의 창작방법 연구」, 高麗大 박사논문, 2007.
11) 「『企齋記異』의 장르적 특성과 형상화 의미」, 연세대 박사논문, 2007.
12) 인물의 특성으로서 일상적 인물과 비일상적 인물의 만남에서 그들이 반(半)사회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상적 인물이 존재의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들었고, 구조의 특성으로서 비(非)갈등서사와 지속불가능한 공존을 들었다. 또 기법의 특성으로서 시·공간이 따로 기능하지 않고 사건에 종속되어 있으며 남성주인공만을 초점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들었다. 위의 논문, 31~64면.

www.kci.go.kr

작가론을 시도한바 신광한이 훈구파와 사림의 속성을 한 몸에 지닌 이중적 처지에 놓여 있었고, 한편으로는 은둔자로서의 불안과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이중적 심리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작가의 그러한 이중적 면모가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고 논술하였다. 이 글은 『기재기이』가 전기소설사[13]에서 지니는 위상을 장르적 속성을 통해 고찰하려 하였고, 특히 『기재기이』에 드러나 있는 특징적인 창작 방식을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기재기이』를 전기소설이 아닌 전기로 본 것은 기존의 일부 연구 성과를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하소설인 <유이양문록>과 <청백운>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그간 미진했던 해당 작품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14] 박숙례는 <유이양문록>을 갈등, 형상화 방법, 작가의식 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폈다. 갈등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서술은 기존 연구에서 다른 대하소설을 언급할 때 밝혀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증거의 추가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이양문록>이 다른 대하소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금강산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박숙례는 이를 와유 전통의 시각에서 해석하였다. 다른 소설과의 상호텍스트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비록 <여와전> 연작에서 보인 것과 같이 다른 소설의 내용이 풍부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는 소설 작가 혹은 독자가 다른 소설도 폭넓게 읽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박숙례의 이 논문은 차후 <유이양문록>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15]

전진아는 <청백운>의 이본, 작가 추정, 구성과 서술기법, 주제를 차례로 검토하고 그를 통해 이 작품의 소설사적 위상을 가늠하였다.[16] <청백운>

13) 최재우는 『기재기이』를 전기소설로 보지 않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전기소설사라 칭하였다.

14) 박숙례, 「유이양문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7; 전진아, 「청백운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7.

15) 2008년에 이미 <유이양문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논문이 있고, 후속 작업도 활발한 편이다.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構成的 性格 硏究」, 『語文硏究』 36권 3호 통권139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가을.

www.kci.go.kr

의 원작은 한문본일 가능성이 높다 하고, 작가인 초료산주인(鷦鷯山主人)은 벌열층이나 몰락양반을 떠나 소설을 의미가 있는 문예양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한 문예적 취향을 지닌 인물로 추정하였다. <청백운>은 가정소설이 아닌 가문소설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증명하려 하였다. 더불어 <청백운>은 장편국문소설의 화소를 대폭 수용하였고 여성의 활약을 수용하면서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모색하려 하였다고 보았다.

재자가인소설은 이전에도 학위논문으로 몇 편 제출된 적이 있을 만큼 최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분야이다.[17] 2007년도에는 중국의 재자가인소설과 한국의 소설을 비교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18] 중국과 한국에 각기 재자가인소설이 있었다 하고 이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모티프, 인물, 내용의 비교 등을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을 대등한 시각에서 보려 한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재자가인소설이 한국에도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조금 무리인 듯하다. 재자와 가인이 등장하면 재자가인소설이라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기소설을 비롯한 많은 수의 한국 고전소설이 재자가인소설에 속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시기 순으로 나누어 비교한 방식도 시기별로 준거를 각기 달리하여 애써 밝힌 성과가 퇴색되게 하였다. 예컨대 초기에는 모티프만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중기에는 인물만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을 들 수 있다.

영웅소설이나 군담소설로 분류되는 <남정팔난기>에 대한 문헌적 연구는 작품 해석의 초석을 다진 논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19] 김송죽은 <남정팔난기>의 이본을 살피는 작업을 통해 <남정팔난기>의 원작은 한문본이며 그로부터 부연 또는 축약되어 국문번역본이 나타나고 그 번역본을 필사하여 세책본이 등장하고 그 외에도 방각본과 활자본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고증하였다. 더불어 현전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한문본이 있음을 추정하

16) 전진아, 앞의 논문.
17) 초위산, 「중국재자가인소설과 한국애정소설의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3; 강미선, 한·중 고전소설의 비교연구 : 중국재자가인소설과 17세기 한글소설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4;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5.
18) 임향란, 「한·중 재자가인소설류 비교 연구」, 인천대 박사논문, 2007.
19) 김송죽, 「<남정팔난기>의 문헌적 연구」, 인천대 박사논문, 2007.

www.kci.go.kr

였다. 향후에 연구자들이 <남정팔난기>의 저본을 선택하는 데 이 글은 일정하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 번역 필사본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었고[20] 가정소설에 드러난 갈등의 양상을 가정 안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피고, 특히 반동인물에 대한 고찰을 행한 논문도 제출되었다.[21] 또한 왕족과 궁녀의 훼절을 소재로 한 작품에 대한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다.[22]

2007년에 석사논문은 25편 정도가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15편 정도가 작품론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모티프, 유통방식, 인물, 문학사상, 비교문학 관련 논문이 있다. 주목을 끄는 몇 편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이주영은 <변강쇠가>에 대한 논의에서 <변강쇠가>가 유랑민의 유랑상과 정착 의지의 좌절이라는 기존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 작품을 '몸'과 결부지어 새롭게 해석하였다.[23] 즉 <변강쇠가>는 전반적으로 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질병과 주검에 대한 두려움이 투사된 것이라 하였다. 그간 <변강쇠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 주류적 해석은 유랑민 혹은 시정 건달과 연관 짓는 것이었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시각을 인정하면서 <변강쇠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봄으로써 관련 연구에 신선함을 불어 넣었다.

김홍영은 우리나라의 <홍백화전>과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인 <옥교리>, <평산냉연>, <호구전> 등을 비교하면서 모티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매우 치밀하게 고찰하였다.[24] <홍백화전>에서 '부정적인 인물'의 성격이 중국 재자가인소설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홍백화전>이 지배적인 유교 이데올로기가 유포한 체제 유지적인 보수성을 재자가인소설에 비

20) 김영, 『조선 후기 명대 소설 번역 필사본 연구 : 새로 발굴된 『셔유긔』, 『고후전』, 『슈양의사』, 『슈사유문』, 『남송연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박사논문, 2007.
21) 박경열, 「고소설의 가정갈등에 나타난 악행(惡行)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7.
22) 임수현, 「고소설에서의 플롯과 권력의 역학관계 연구 : 왕족과 궁녀의 훼절 소재 작품을 대상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07.
23)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몸의 형상과 죽음에 대한 인식」, 고려대 석사논문, 2007.
24) 김홍영, 「한·중 애정소설 비교연구 : <홍백화전>과 중국 애정소설의 서사구조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2007.

www.kci.go.kr

해 더욱 보인 것이라 해석하였다. 인물을 중심으로 두 나라 소설의 특성을 짚어낸 의의가 있다. 다만 인물의 양상을 논하면서 <홍백화전>에서는 여성이 서사의 주도적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는 여성영웅소설의 형성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바 이는 작품의 향유층,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판본이나 이본, 유통 과정에 대한 연구도 꼼꼼히 수행됨으로써 관련 분야에 도움을 주었다. 이진오는 경판 <토싱전>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면서 경판 <토싱젼> 16장본의 판목은 1850년경에 초간본이 출현했을 가능성이 짙고 20세기 초 <토싱젼>에 '그물위기' 대목이 수용되고 이에 <노셤샹좌기>가 합철되었다고 고증하였다.[25] 박혜순은 <곽분양전>의 이본을 매우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곽분양전> 연구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26] 계명대본 필사본의 전모를 처음으로 밝히고 소개하였다. 계명대본과 판각본(동양어학교본)의 관계를 고구하며 계명대본이 동양어학교본으로 가면서 초월성이 약화하고 인물 관계도 약화하였으며 축약이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엄태웅은 활자본 고전소설 중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양상을 정밀하게 고증함으로써 고전소설 활자본과 관련되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27]

조승애는 <포의교집>과 일본의 <산시로>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논의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28] 다만 점검해야 할 점들이 다수 눈에 띈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승애는 <포의교집>을 전기적, 傳的, 야담적 속성이 혼합된 소설로 보고 초옥의 주도로 이생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를 근대적 성격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산시로>의 주인공 미네코의 욕망은 개인 안에서만 생성되고 충족될 수 있는 개인적 산물이므로 근대적이라 하였다. 결국 두 여주인공의 욕망을 통해 볼 때 초옥의 욕망은 미네코의 욕망에 비해 근대 여성이 보이는 진보적 모습의 전 단계라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근대적 욕망을 개

25) 이진오,「경판 <토생전>의 형성과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2007.
26) 박혜순, 「 <郭汾陽傳> 硏究 : 구성과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7.
27) 엄태웅,「활자본 고전소설의 근대적 간행 양상 : 신구서림의 간행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7.
28) 조승애, 「『포의교집』에 나타나는 근대성 연구-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산시로(三四郎)』과 연관하여-」, 단국대 석사논문, 2007.

www.kci.go.kr

인적 욕망이라 환치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근대와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로 두 작품을 재단하고 있다.

4. 범주로 본 소논문

4.1. 소설의 발생과 장르

고전소설의 발생 문제는 그 성격상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2007년에도 역시 발생과 관련된 논문이 몇 편 제출되었다.

박일용은 초기서사문학사를 전기, 전기소설과만 연관 짓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김현감호>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 초기서사문학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29]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물들에서는 <김현감호>를 '전기'로 보든 아니면 '전기소설'로 보든 연구자들이 설정한 장르 구분의 지표와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 내용이 충돌을 일으키거나 작품 해석과 실상 사이에 거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김현감호>가 사람과 호랑이라는 현실적 조건이 다른 두 남녀의 결연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호녀의 자발적인 희생과 그에 대한 보응의 형태로 탈바꿈하는 형식을 지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30] <김현감호>에서는 실제로는 김현과 호녀 사이에 감정적 거리가 확대되어 나타나 있는데, 즉 호녀가 김현을 진심으로 사랑한 데 반해 김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호녀의 희생은 기이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하였다. 그리고 호녀의 일을 기이한 것으로 보거나 부처의 영험으로 본 김현과 일연의 세계관에 의해 그러한 희생은 질곡의 차원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김현감호>는 현실적 지배질서를 지향하는 김현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부처의 영험을 부각시킨 불교적 영이전(靈異傳)이라 하였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초기서사문학사를 전기, 전기소설 일변도로만 보는

29) 박일용, 「소설사의 기점과 장르적 성격 논의의 성과와 과제」,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30) 위의 글, 18면.

www.kci.go.kr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실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였음을 실증하였다. 서사문학사에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미 장효현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면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고찰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논자도 지적하였듯이 아직 이러한 장르 성격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31]은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윤주필은 우언이 초기 고전소설(16세기)에 미친 영향을 탐색하였다.[32] 논자에 따르면 우언은 경험적 서사가 허구적 서사로 전환되는 중간 과정의 것이다. 이 우언이 영향을 미친 우언계 소설은 주로 가상의 서사를 통해 기존 통념에 대한 긍정이나 비판의식을 예시적으로 허구화하는데 16세기의 <대관재몽유록>을 그 예로 들었다.

조현우는 역사 서술 속에 내재된 허구성의 문제를 통해 역사와 허구의 문제를 점검하였다.[33] 역사가 '사실의 기록'이라고 할 때의 '사실'이란 단순히 실제로 발생한 일뿐만 아니라 믿음・권위・당위・기록에 있음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로서의 리얼리티'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역사 서술에서 시간의 지속성은 서구의 플롯 개념이 인과적 구성의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는 데 반해 폐쇄성을 넘어 '전체'의 범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결국 암묵적으로 전제되었던 '소설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서사(敍事)' 개념을 통해 동아시아 특유의 담화 방식을 볼 필요가 있다 하였다. 우리나라의 소설을 서구의 novel 개념으로 재단할 수 없고, 또 소설을 진화론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소설 대신 '서사'로 보자고 제안한 논문이다. 다만 이 글은 소설의 외연을 확대시킴으로써 소설을 비롯한 개별 장르 사이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드러나 있다.

4.2. 문헌 및 판본 연구

---

31) 위의 글, 28면 각주 20번.
32) 윤주필, 「우언문학사와 초기소설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33) 조현우, 「'초기소설사'에서의 역사와 허구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www.kci.go.kr

문헌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10여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본의 계열을 정립하여 원전이나 선본(善本)을 추정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가운데,[34] 완판본에 대한 연구와 주석 및 각자체 연구가 행해졌다. 이 가운데 구운몽과 관련하여 국문본과 한문본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35] 양문충의록에 대한 이본 연구,[36]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를 탐구한 논문[37]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구운몽>의 선본(先本)이 국문본인가, 한문본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정길수가 이에 대한 견해를 덧붙였다. 정길수는 노존B본(한문)을 선행본으로 하여 그것이 각기 노존A본(한문)으로 개작되고 규장각본(국문)으로 국역되어 분화했다는 정규복의 주장과 규장각본을 선행본으로 하여 그것이 각기 노존B본으로 한역되고 노존A본으로 개작되었다는 다니엘 부세・지연숙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구운몽>은 한문본(원-노존B본)을 선행본으로 하여 그것이 국문본(원-규장각본)으로 직역되고 국문본은 다시 노존A본으로 한역, 개작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38]

한문본이 국문본보다 선행한다는 근거로, 국문본에 잘못되어 있거나 간략히 처리된 부분이 한문본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 한문본에 제대로 되어 있는 한자를 국문본에는 잘못 쓰여 있는 점('占'을 '고'로 읽은 것), 한문본의 운문이 국문본에는 산문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태후의 칠보시 해석 대목이 한문 교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논거를 풍부히 들어 증명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 예컨대, 국문본이 선행했다는 논거 중의 하나로 황후가 난양과 정경패가 지은 칠보시(七步詩)를 품평하는 장면을 들고 있다. 그 부분은 한문 교양을 지닌 독자를 겨냥한 것이고 따라서 애초에 국문보다는 한문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

34) 이에 해당되는 논문이 너무 많으므로 논문을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본문 뒤에 범주화하여 붙인 문헌 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논문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모두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
35) 정길수, 「『구운몽』 원전의 탐색」,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36)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차충환, 「〈양문충의록〉 의 이본과 주변 작품과의 연계성」,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9.
37) 이창헌, 「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刻字體) 연구」, 『韓國文學論叢』 45, 한국문학회, 2007.4.
38) 정길수, 앞의 글.

www.kci.go.kr

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문으로 창작된 많은 대하소설에 이러한 수준 높은 교양을 요하는 문장이 널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양 수준과 표기 형태를 연관지어 선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문본이 노존A본으로 개작 한역되었다는 주장에서 논증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된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39]

강미선과 차충환은 비슷한 시기에 <양문충의록>의 이본과 유사 작품을 비교, 검토하였다.[40] 두 연구자는 장서각에 소장된 <양문충의록>의 이본 43권본과 32권본을 검토하였다. 43권본이 서사가 자세하나 매끄럽지 못하고 32권본은 상대적으로 소략하나 서사가 자연스러우며, 32권본이 쉽고 흥미를 끄는 문체로 되어 있다는 점은 두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다. 더불어 <양문충의록>이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 연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 또한 의견이 같다. 강미선은 32권본의 특징을 부각시켜 32권본에는 서민들도 알 수 있는 쉬운 어휘가 등장한다는 점 등을 들어 독자층이 서민층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대하소설의 독자층을 통상 주장되던 사대부가로부터 서민층에까지 확대해서 보려고 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상층민의 생활을 다루고 있는 다른 대하소설들과 내용상 큰 차이를 갖지 못한다고(61면) 한 서술이 모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쉽게 쓰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어가 많은 32권본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해명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차충환의 경우, <현몽쌍룡기> 연작과의 관계를 중시한바, <현몽쌍룡기> 연작과 <양문충의록>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를 파생시킨 관계로 보기보다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존립했다고 하였다. 같은 작품에 대한 이본 연구지만 서로 초점을 달리한 결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권혁래는 다카하시 도루(高橋亨)가 펴낸 『朝鮮の物語集附俚諺』(1910년 9월 5일 日韓書房에서 간행)에 실린 개작본 <춘향전>을 살폈다.[41] 다카하

39) 이와 관련한 논의가 바로 제기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정규복, 「정길수 교수의 「구운몽 원전의 탐색」을 읽고」, 『민족문화연구』 4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40)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차충환, 「〈양문충의록〉 의 이본과 주변 작품과의 연계성」,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9.

41) 권혁래, 「다카하시(高橋) 본 <춘향전>의 특징과 의의」,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www.kci.go.kr

시 본 <춘향전>의 구성적 특징과 아울러 개작 양상을 살폈다. 춘향이 이상화되어 있고, 비장미가 약화된 대신 해학이 부각되어 있으며 서사가 합리적으로 개작되어 있다 하였다.

이창헌의 연구는 경판방각소설 <홍길동전>을 대상으로 그 각자체를 살핀 논문[42]으로서 각자체와 관련한, 논자의 일련의 작업 중의 하나이다. 해서가 중심인 완판과 달리 경판은 행서나 초서가 중심이라 하고, 오독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살폈다. 방각본과 관련하여 그 연구의 폭을 넓혀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4.3. 서사의 짜임

서사를 축조하는 방식, 즉, 구성이나 서술방식, 창작방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였다. 대상 작품도『금오신화』, <삼선기>, <사씨남정기>, <화정선행록>, <열녀춘향수절가>, <윤하정삼문취록>, <김이양문록> 등으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만복사저포기>의 창작 방식을 논한 연구가 눈에 띈다.

조광국은 대하소설에 보이는 부부 조합과 다중 결연 양상에 관한 논문들을 통해 대하소설의 서사 축조 방식을 일정 부분 해명하였다. <유씨삼대록>에 대한 검토에서 부부 관계의 조합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을 고찰하였다.[43] 작품에 나타난 부부의 관계는 이상형과 갈등형으로 나뉜다 하였다. 이상형 부부는 군자형 남편과 여사형 아내로 조합되고, 갈등형 부부는 매우 다양하게 조합이 되는데 남편의 경우 호방풍정형, 군자지향형으로 아내의 경우 여사지향형, 투기질투형, 적극활발형, 오만방자형으로 大別된다고 하였다. 이들 인물들이 서로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 독자에게 흥미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화정선행록>과 관련해서는 다중 결연 양상을 살폈다.[44] 이 작품은 2중, 3중, 4중 결연을 포괄하는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를 지

42) 이창헌,「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刻字體) 연구」,『韓國文學論叢』45, 한국문학회, 2007.4.
43) 조광국,「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의 경우 -」,『개신어문연구』26, 개신어문학회, 2007.12.
44) 조광국,「<화정선행록>에 나타난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한국문학논총』45, 한국문학회, 2007.4.

www.kci.go.kr

니고 있으며, 더욱이 그런 다중결연의 복합 구조가 여러 세대들을 펼쳐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同一 世代에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면서도 산만하지 않고 균형적 형식미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다.[45] 서사의 구성 요소로 다중 결연이 일정한 몫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전성운은 <만복사저포기>의 창작 방식과 그 의도를 논하면서. <만복사저포기>는 요절한 시적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서사를 활용한 시화소설(詩化小說)의 면모를 지녔고, 작품의 시사(詩詞)는 서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대로 시사를 위해 인물과 배경을 설정한 것이며, 김시습이 작품을 창작한 목적은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46] 기존의 주도적인 논의와는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작품을 보았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시사(詩詞)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시사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나머지 작품 창작의 목적까지 문재의 과시라고 한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4.4. 주제, 작가의식

소설에 나타난 주제나 작가의식을 찾는 것은 소설 연구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반영하듯 2007년에도 10여 편의 관련 연구가 행해졌다. <최고운전>과 같은 영웅소설을 비롯하여 <유씨삼대록>과 같은 대하소설, <홍계월전>과 같은 여성영웅소설, 김만중 소설, 박지원 소설에 이르기까지 그 장르가 다양하다.

오세정의 글은 『금오신화』 중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에 등장하는 귀신, 선녀의 신격 의미를 이론적으로 탐색한 논문으로서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연관을 맺고 있는 양상을 고찰하였다.[47]

---

45) 위의 글, 92면.
46) 전성운, 「『금오신화』의 창작 방식과 의도-<만복사저포기>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47) 오세정, 「『금오신화』에 나타난 현실세계와 상상세계의 교섭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www.kci.go.kr

<홍계월전>과 관련하여 김미령은 <홍계월전>의 서사 구조와 인물을 탐구하고 그로부터 <홍계월전>은 당시의 여성이 꿈꾸는 욕망을 거침없이 발현해 간 통쾌한 인생 역전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48] 작품 내에서 홍계월을 둘러싼 인물들과 <홍계월전>의 통속소설적 속성, 사회적 환경 등을 별반 고려하지 않고 홍계월이라는 여성 인물만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본 결과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5 모티프와 소재

서사세계를 구성하는 주요한 것 중의 하나가 모티프이다. 모티프에는 재물, 음식 등 비서사적인 것으로부터 투강(投江), 수난(受難), 혼사장애, 변신 등 서사적인 것[49]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매우 다양하다. 소설은 이러한 모티프와 자잘한 소재에 의해 구성되고, 그 구성의 유연함과 참신함에 의해 미학적 성취가 결정되기도 한다. 모티프는 이처럼 중요하기에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왔고, 전년도에도 역시 15편이 넘는 관련 논문이 제출되었다. 식욕, 애정, 해몽, 출생담, 결연 등 다양한 모티프가 연구되었다.

윤채근은 <포의교집>을 분석하면서 초옥은 남성 욕망의 대상이 되거나 그 욕망을 갈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남성의 욕망 그 자체로 환유된 인물이라 하였다.[50] 이는 남성성의 결여와 그로 인해 참담하게 이지러진 중세의 윤리적 주체를 도착적으로 회복시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51] 초옥은 알아주고 앎을 수혜 받는 고독한 전기적 주체, 혹은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희구하는 연애의 주체를 배반하는 인물이라 하고 이것이 <포의교집>이 지닌 소설사적 의의라 하였다. 이 논의는 초옥의 욕망을 남성이 중심이

62, 한국언어문학회, 2007.9.

48) 김미령, 「<홍계월전>의 여성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12.

49) 비서사, 서사는 필자가 임의로 붙였다. 모티프 가운데 동작이 가미되고 시간적 흐름이 있는 것을 서사적 모티프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서사적 모티프라 하였다.

50) 윤채근, 「『포의교집』에 나타난 근대적 욕망 구조 -안티고네적 희생과 히스테리 사이-」, 『청람어문교육』 35, 청람어문교육학회, 2007.6.

51) 윤채근, 앞의 논문, 241면.

www.kci.go.kr

된 중세 윤리 체계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이를 통해 <포의교집>이 남성성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 당시 가부장 사회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작품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52]

강명관은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그 판타지적 속성을 분석하였다.[53] 논자에 따르면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식욕 담론은 민중들의 욕망을 언어화한 것인데, 이러한 욕망은 현실 세계에서 충족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소설 유형에는 제비의 박씨와 같은 판타지가 등장하여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킨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과 판타지는 지배 윤리와는 대립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소설에는 효나 우애와 같은 지배층의 윤리가 덧씌워졌다고 하였다. 판소리계 소설에 드러난 욕망과 판타지, 이념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글로서, 작품에서 욕망과 이념이 상충되지 않고 드러날 수 있었던 까닭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4.6. 소설과 문학 치료

근래 들어 소설을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보고, 이러한 관점에 따라 소설을 분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문학 치료이다. 전년도에도 역시 문학 치료적 관점에서 연구된 소설이 꽤 있었다.

임치균은 <옥환기봉>에 드러난 부부갈등에 대한 정서적 대응물로서 <취미삼선록>과 <한조삼성기봉>이 있다 하였다. <옥환기봉>에서 광무제가 곽후를 독하게 대한 것에 대해 <취미삼선록>에는 남편이 아내의 처지를 이해하는 관점이 부각되어 있고, <한조삼성기봉>에는 더 나아가 남

52) 한편 정환국은 <포의교집>의 '초옥'과 <변강쇠가>의 '옹녀'를 비교하면서 '초옥'과 '옹녀'는 19세기에 어떤 수를 써도 현실의 질곡을 벗어날 수 없었던 여성들의 삶을 일정하게 형상화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는 19세기가 지닌 시대적 특성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 윤채근이 '초옥'을 남성적 욕망으로 환치한 인물이라는 견해와 대비가 된다. 정환국, 「'楚玉'과 '옹녀'」,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12.

53) 강명관,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판타지」,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12.

www.kci.go.kr

녀가 바뀌어 환생해 곽후의 복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결국 세 작품은 현실에서 부부 갈등이 생겼을 때 각각을 모형으로 하여 부부가 글쓰기를 함으로써 서로 치유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하였다. 이 글은 관계가 독특한 작품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문학치료적 관점에까지 관심의 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각 작품을 모형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나 모델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강옥은 <구운몽>이 우울증 치료 텍스트일 수 있음을 상정하고 인물의 정신적 성장, 서사적 구성, 속임수 모티프 등을 분석하면서 우울증 치료 방법을 도모하였다.[54] <민옹전>의 민옹을 박지원의 우울증을 치유하는 심리 치료사로 보고 작품을 분석한 논문도 제출되었다.[55]

4.7. 비교문학

2007년에 이루어진 비교문학은 한중, 한일 문학 위주였다. 그 대상은 당의 전기, <삼국지>, 서사건국지, 에도시대의 희작 등이었다.

이승수는 <삼한습유>에 보이는 시공간의 변화와 주제 사이의 연관을 중국소설 <서유기>와 비교하여 탐색하였다.[56] 먼저 <삼한습유>가 한 인물의 일생을 그려내는 전(傳)의 형식을 띠고 있다면 <서유기>는 한 사건의 본말을 담은 기(記)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였다. 서사의 전개는 <삼한습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유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절대 진리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시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두 작품이 언뜻 보기에는 별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환상적인 면과 시간 또는 공간의 이동을 공통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새롭다.

---

54) 이강옥, 「문학 치료 텍스트로서의 <구운몽>의 가치와 가능성-우울증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55) 이민희, 「심리 치료 측면에서 본 <민옹전(閔翁傳)> 소고(小考)」,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6.

56) 이승수, 「『삼한습유(三韓拾遺)』의 공간과 주제 -『서유기(西遊記)』와의 대비를 겸하여-」,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6.

www.kci.go.kr

4.8. 소설과 문화콘텐츠

고전소설을 문화콘텐츠화하는 문제는 근래에 부각된 연구 주제이다. 2007년에도 캐릭터 디자인, 영화, 애니메이션에 걸쳐 다양한 글이 제출되었다.

이정원은 고전소설의 해학적 악인을 원형으로 삼아 캐릭터를 디자인하기 위한 방법을 서사적 입장에서 제시하려 하였다.[57] 뺑덕어멈이나, 옹고집, 놀부와 같은 해학적 악인에 대한 수용층의 태도는 '희극적 관용'으로 나타난다 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기반을 외모, 행동, 결말 부분으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이들의 외모는 기괴하여 공포에 대한 극적 환상을 깨뜨리고, 행동은 심술에 가까우며 징치 또한 절대성을 띠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결과 해학적 악인은 사회적 규범의 경직성과 이타성을 조롱하는 원초적인 이기심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해학적 악인 캐릭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해학적 악인의 특징을 잘 포착하여 논증한 의의가 있어 여타 유형의 고전소설에도 적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악인'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주관적이므로 객관화할 수 있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춘향전>의 영화화 양상을 살핀 논문[58]과 <심청전>을 토대로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의 제작 과정과 그 특징을 살핀 논문이 주목된다.[59] 특히 후자의 경우 그 특징으로서 캐릭터의 권선징악적 면모가 강화되고 사건 전개가 긴박해졌으며 시간, 공간 배경의 활용이 적극적이라는 점을 들어 원래의 소설과 이를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 사이의 차이를 적절하게 밝혔다.

4.9. 기타

---

57) 이정원, 「해학적 악인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서사적 접근」,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58) 권순긍, 「고전소설의 영화화」,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59) 심치열, 「고전소설을 수용한 장편 애니메이션-<왕후 심청> 스크립트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www.kci.go.kr

4.9.1. 번역중국소설, 중국소설 속의 조선

지난해에는 중국소설과 관련하여 10여 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에는 한글로 번역된 중국소설과 중국소설 속에 나타난 조선, 김성탄의 비평 등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된 중국소설에는 <수상신주광복지연의>나 당의 전기, <남송연의>, <삼국지>, 애정류 소설, <경화연> 등이 있다.

양승민은 중국의 소설인 진해춘추(鎭海春秋)를 분석하고 그 속에 나타난 조선을 들여다보았다.[60] 이 글은 중국 영웅전기소설인 <진해춘추>에 나타난 국제 정세와 조선의 동향을 보고한 글이다. 조선과 후금의 관계, 광해군의 외교 정책, 계해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등이 묘사되어 있다고 하였다. 조선 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비화를 중국의 문헌을 통해 소개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허구의 산물이어서 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소설을 마치 역사서처럼 취급하였다.[61] 이승수는 <수호전> 중 무송(武松)에 대해 평을 한 김성탄의 비평을 고찰하였다.[62] 김성탄은 『사기열전』에 근거를 두고 한 인물의 전기(傳記)로 <수호전>을 이해하였다고 하였다.

4.9.2. 유통

고전소설의 유통과 관련하여 두 편 정도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김재웅은 경북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전소설의 종류와 성격, 이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63] 가정소설, 영웅소설, 군담소설이 주로 유통되었고 양반가에서

60) 양승민, 「중국 금서소설(禁書小說) 속의 명청교체기 조선(朝鮮)-진해춘추(鎭海春秋) 속에 형상화된 허구적 진실-」,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61) 양승민은 다른 글에서도 중국의 문헌을 통해 조선을 인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양승민, 「<遼海丹忠錄>을 통해 본 명청교체기의 중국과 조선」, 『고전과 해석』2,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7.4.

62) 이승수, 「『수호전』 武松 評에 나타난 김성탄의 비평의식」,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63) 김재웅, 「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www.kci.go.kr

는 대하소설이 유통되기도 하였고 향유층은 주로 여성임을 재확인하였다. 김진영은 한 구연자의 사례를 현장 조사하여 고전소설의 유통을 조사하였다.[64] 소설이 구독(購讀), 차람(借覽), 필사(筆寫)의 방식으로 유통되었음을 밝혔는데, 이는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실증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4.9.3. 소설과 인접 장르

고전소설은 끊임없이 다른 장르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특히 설화와의 연관을 고찰한 연구가 주목된다. 그 중 쥐 변신 설화가 <옹고집전>에 미친 영향을 탐색한 유광수의 글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65] 통상 진가쟁주와 연관시켜 해석하던 <옹고집전>을 그 연원이 되는 설화를 밝혀 새롭게 분석했기 때문이다. 유광수에 따르면 쥐 변신 설화는 다른 동물 변신담이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데 반해 성적 농담과 낄낄거림을 우선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성적 환상과 낄낄거림의 상황을 가져와 새롭게 구성하여 풍자적으로 적용해서 해학성을 높인 것이 김삼불본 <옹고집전>이라 하였다. 쥐라는 소재와 변신이라는 모티프가 같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화와 소설을 연관시켰고, 그것을 성적인 면에 연결했다는 점에서 발상이 참신하다.

4.9.4. 문체 연구

김문희는 대하소설 <현몽쌍룡기>의 문체를 고찰하면서 특히 대화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였다.[66] 이 작품에서 대화는 격식을 차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밖에서는 격식을 차리던 남성주인공이 집 안에서는 이들의 행동

64) 김진영, 「古典小說의 流通과 口演 事例 考察-영동군 학산면 민옥순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12.
65) 유광수, 「'쥐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 양상」,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66)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www.kci.go.kr

이 풍자의 대상이 되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대화 양상은 지배담론의 이면에서 저항담론이 함께 의미화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대하소설의 문체를 분석하려 했다는 점, 나아가 문체를 통해 주제의식까지 고찰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저항담론의 주체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5. 새로운 자료

이태영에 의해 발견된 완판본의 책판은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67] 그는 1892년 간행된 완판 29장본 <삼국지>의 책판을 2007년에 경매 시장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개하였다. 발견된 책판은 <삼국지>의 첫 장과 둘째 장, 즉 1면과 2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김정녀는 조석철(趙錫喆, 1724~1799)이 지은 몽유록 <정와기몽>을 소개하였다.[68] 몽유자인 '余'가 꿈에 한 노선생을 만나 그로부터 만물의 이치, 存養修身의 방법, 학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뒤 꿈에서 깨어난다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창작시기는 1754년이고 작품에 등장하는 노선생은 퇴계 이황이라 유추하였다.

류준경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한문소설 <종생전>을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69] 소개자에 따르면 이 작품은 19세기 경, 경상도 지방에서 유통, 향유된 것이며, 17세기의 애정전기소설, 특히 <주생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창작되었다. 같은 마을의 종생과 두낭자가 결연을 하였으나 끝내는 헤어진다는 내용이다. 전기적 인물 형상, 문어체, 비극적 결말구조, <주생전>의 패러디 등을 고려할 때 전기소설적 전통에 이 작품이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 다만, 개인적 욕망이 부각되고 중국이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변용이 일어나 있다고 하였다.

---

67) 이태영, 「새로 소개하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책판」, 『국어문학』 43, 국어문학회, 2007.12.
68) 김정녀, 「신 자료 <靜窩記夢>의 작자와 우의적 성격」,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69) 류준경, 「미발표 한문소설 「宗生傳」에 대하여 :전기소설적 특성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硏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12.

www.kci.go.kr

김재웅은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된 국문 필사본 <원자실전>(37장, 매면 11행, 매행 28자 내외, 1883년 이전 창작)을 소개하였다.[70] 현생에서 가난하게 살던 원자실이 저승세계를 구경하고 현생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이라 하고,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삼산복지지(三山福地誌)>를 모본으로 하여 새로운 내용을 가미한 번안 및 재창작소설로 보았다. 전기소설에 등장하는 현실세계, 저승세계, 현실세계로 이어지는 전기소설의 구조적 전통을 수용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은 고전소설에 <원자실전>도 그 자장에 있음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6. 나오며

이상으로 2007년도에 나온 고전소설 관련 논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 어느 해보다도 고전소설과 관련한 기초 작업이 탄탄하게 이루어진 해로 보인다. 역주서와 자료집이 경쟁적으로 간행되었고, 석박사 논문을 비롯하여 소논문에도 문헌 획정과 관련한 작업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작업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고전소설 연구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주제나 모티프, 비교문학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외에 문학 치료, 문화 콘텐츠와 같이 새롭게 각광받는 연구 주제가 대거 등장했다는 점도 2007년도 고전소설 연구 동향의 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고전소설을 다양한 방면에 접목하고 응용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고전소설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더욱 세련되게 가다듬고 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먼저 비평 용어의 선택과 정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악인, 악행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용어는 매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점, 즉 객관성을 상실한 용어라는 점에서 비평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또한 논쟁의 부재를 들

70) 김재웅, 「<원자실전>의 전기소설적 성격과 의미」, 『어문연구』 53, 語文硏究學會, 2007.4.

www.kci.go.kr

수 있다. <포의교집>의 '초옥'을 대상으로 한 논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자아(我自我) 여자여(汝自汝), 즉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식의 논의는 연구사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기존 논의를 충실히 읽고서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로부터 비로소 생산적인 논쟁이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단행본

연구서

강명관, 『국문학과 민족 그리고 근대』, 소명출판, 2007.

국어국문학회 편, 『국어국문학과 인문학적 상상력』, 국어국문학회, 2007.

국제어문학회 편, 『국어국문학 연구의 문화론적 전망』, 보고사, 2007.

권도경, 『조선후기 한문소설에 나타난 통속화의 한 경향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김경남, 『서사문학의 전쟁소재와 그 의미』, 보고사, 2007.

김수중,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김현양, 『한국 고전소설사의 거점』, 보고사, 2007.

설성경, 『구운몽의 통시적 연구』, 새문사, 2007.

오대혁, 『『금오신화』와 한국소설의 기원』, 역락, 2007.

유병환, 『구운몽의 사상적 실상』, 다래헌, 2007.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 관계 연구』, 역락, 2007.

이민희, 『조선의 베스트셀러 : 조선 후기 세책업의 발달과 소설의 유행』, 웅진씽크빅, 2007.

임성례, 『완판 영웅소설의 대중성』, 소명출판, 2007.

허원기, 『고전산문자료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허원기, 『고전서사문학의 사상과 미학』, 경인문화사, 2007.

역주, 교주, 주해

김만중, 김병국 교주, 『(원문교주)구운몽』,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김만중, 김병국 역, 『(현대어역)구운몽』,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박희병·정길수 편역, 『낯선 세계로의 여행』, 돌베개, 2007.

박희병·정길수 편역,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박희병·정길수 편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베개, 2007.

김기형 역주, 『적벽가·강릉매화타령·배비장전·무숙이타령·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김소행, 조혜란 역주, 『삼한습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박재연·이재홍 교주, 『셔한연의』, 학고방, 2007.

박재연·정승혜·이재홍 교주, 『동한연의』, 학고방, 2007.

王雪庵 편, 박재연·이상덕·이재홍 교주, 『수상신쥬광복지연의』 상·하, 학고방,

www.kci.go.kr

2007.
이금희 역주, 『열여춘향슈졀가』, 푸른사상사, 2007.
이윤석・김경숙 교주, 『홍길동전. 임장군전. 정을선전. 이대봉전』, 경인문화사, 2007.
이윤석・박재연・유춘동 교주,『슈허지』, 학고방, 2007.
임인선 역주, 『(역주)옥원중회연』, 다운샘, 2007.
혜경궁 홍씨, 전규태 주해, 『한중록』, 범우사, 2007.

자료집
『명행정의록』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장효현 외, 『傳奇小說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장효현 외, 『夢遊錄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장효현 외, 『영웅소설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장효현 외, 『영웅소설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장효현 외, 『愛情世態小說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장효현 외, 『家庭家門小說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장효현 외, 『寓言寓話小說 :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학위논문

박사
김송죽,「<남정팔난기>의 문헌적 연구」, 인천대 박사논문, 2007.
김영, 『조선 후기 명대 소설 번역 필사본 연구 : 새로 발굴된 『셔유긔』,『고후전』,『슈양의사』,『슈사유문』,『남송연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박사논문, 2007.
문한별, 『한국 근대 소설 양식의 형성과정 연구 : 전통 문학 양식의 수용과 대립을 중심으로』, 高麗大 박사논문, 2007.
박경열,「고소설의 가정갈등에 나타난 악행(惡行)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2007.

www.kci.go.kr

박숙례,「유이양문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7.
송명진,「개화기 서사 형성 연구: 고전 산문 양식의 전화 양상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07.
엄기영,「<企齋記異>의 창작방법 연구」, 高麗大 박사논문, 2007.
임수현,「고소설에서의 플롯과 권력의 역학관계 연구 : 왕족과 궁녀의 훼절 소재 작품을 대상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07.
임향란, 『한·중 재자가인소설류 비교연구』, 인천대 박사논문, 2007.
전진아, 『<청백운>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7.
최재우, 「 '企齋記異'의 장르적 특성과 형상화 의미」, 연세대 박사논문, 2007.

석사
곽인경, 「설홍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7.
구지선, 「<晩河夢遊錄>의 구성적 특징과 현실 인식」, 高麗大 석사논문, 2007.
권경순, 「玉樹記』 연구 : 結緣 樣相과 敍述 特徵을 中心으로」, 高麗大 석사논문, 2007.
김경숙, 「전기소설 <주생전> 연구」, 순천대 석사논문, 2007.
김영혜,「연명담을 수용한 고소설의 '조력자' 연구 ,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7.
김홍영, 「한·중 애정소설 비교연구 : <홍백화전>과 중국 애정소설의 서사구조 비교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2007.
문성신, 「<한당유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07.
민선애, 「임호은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7.
박양리, 「삼선기의 서사방식과 주제의식」, 부산대 석사논문, 2007.
박은희, 「삼성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7.
박혜순, 「 <郭汾陽傳> 硏究 : 구성과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7.
송태숙, 「이봉빈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7.
신경남, 「성풍속으로 본 <남원고사>의 주제 연구」, 경원대 석사논문, 2007.
엄태웅,「활자본 고전소설의 근대적 간행 양상 : 신구서림의 간행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7.
염재규, 「삼선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7.
윤보윤, 「재생서사에 나타난 초월적 조력자의 비교 연구 : 불교서사와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2007.
이남, 「古小說 女人들의 逆行性 硏究」, 전주대 석사논문, 2007.
이수정, 「천정가연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7.
이주영, 「<변강쇠가>에 나타난 몸의 형상과 죽음에 대한 인식」, 고려대 석사논

www.kci.go.kr

문, 2007.
이진오,「경판 <토생젼>의 형성과 소설사적 의미」, 고려대 석사논문, 2007.
전현례, 「'황진이' 소재 역사소설 연구」, 忠南大 석사논문, 2007.
정재욱, 「연암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 연구」, 朝鮮大 석사논문, 2007.
조승애,「『포의교집』에 나타나는 근대성 연구-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산시로(三四郎)』과 연관하여-」, 단국대 석사논문, 2007.
조호, 「朴趾源의「烈女咸陽朴氏傳」과 吳敬梓의「徽州府烈婦殉夫」比較硏究」, 韓南大 석사논문, 2007.
천병훈, 「온달전」연구 : 해석 현상을 중심으로」, 세종대 석사논문, 2007.

소논문

소설의 발생과 장르
박일용,「소설사의 기점과 장르적 성격 논의의 성과와 과제 ,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윤주필,「우언문학사와 초기소설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조현우,「'초기소설사'에서의 역사와 허구의 관련 양상」,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문헌 및 판본 연구
강미선,「<양문충의록>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권혁래,「다카하시(高橋) 본 <춘향전>의 특징과 의의」,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서혜은,「〈장화홍련전〉 이본 계열의 성격과 독자 의식 , 『어문학』 97, 한국어문학회, 2007.9.
유광수, 「<옥련몽> 이본과 선본계열 추정」, 『東洋學』 42, 단국대학교 東洋學硏究所, 2007.12.
이윤석,「『남원고사』 주석의 몇 가지 문제」, 『東方學志』 14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12.
이정원, 「영화 <장화, 홍련>에서 여성에 대한 기억과 실제 -고소설 <장화홍련전> 이본 연구 관점에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12.
이창헌,「경판방각소설의 각자체(刻字體) 연구」, 『韓國文學論叢』 45, 한국문학회, 2007.4.

www.kci.go.kr

이태영,「새로 소개하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과 책판」, 『국어문학』 43, 국어문학회, 2007.12.
이태영, 「완판본의 개념과 문학적 의의」, 『문예연구』 14권 3호, 문예연구사, 2007.
정길수,「『구운몽』 원전의 탐색」,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語文硏究學會, 2007.4.
차충환,「〈양문충의록〉의 이본과 주변 작품과의 연계성 ,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07.9.
홍윤표,「한글의 역사와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문헌적 가치」, 『국어문학』 43, 국어문학회, 2007.12.

서사의 짜임
권혁래,「임오군란 피란담 신,고소설의 소설작법 연구 -고소설 <서진사전>과 신소설 <마상루>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6.
김균홍, 「취암본〈뇌성전〉의 구조와 그 의미」, 『어문논총』46,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6.
김병권,「〈열녀춘향수절가〉 구성의 주역적 원리 연구」, 『한국문학논총』 47, 한국문학회, 2007.12.
김용기, 〈萬福寺樗蒲記〉의 敍述技法과 人物 性格의 形象化 方式 硏究」, 『우리문학연구』22, 우리어문학회, 2007.8.
김재웅, 「<김이양문록>의 창작방법과 가정소설적 의미」, 『嶺南學』 1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12.
문범두,「<三仙記> 硏究 :敍事構造와 作家意識을 中心으로」, 『韓民族語文學』 50, 한민족어문학회, 2007.6.
이지영,「지문의 종결형태를 통해 본 고전소설의 서술방식:<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 『정문화연구』30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여름.
전성운,「『금오신화』의 창작 방식과 의도-<만복사저포기>를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정영신,「<尹河鄭三門聚錄>에 나타난 人物間 結緣의 特性」, 『溫知論叢』 17, 온지학회, 2007.9.
조광국,「〈화정선행록〉에 나타난 多重結緣의 複合 構造」, 『한국문학논총』 45, 한국문학회, 2007.4.
조광국,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의 경우 -」, 『개신

www.kci.go.kr

어문연구』 26, 개신어문학회, 2007.12.

주제, 작가의식

김미령,「<홍계월전>의 여성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12.

박기석, 〈예덕선생전〉과 정덕(正德)사상」,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8.

안창수,「욕망의 변증법적 전개양상을 통해 살펴본 〈최고운전〉의 특징과 그 소설사적 의미」, 『韓民族語文學』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12.

이문규,「〈구운몽〉의 性愛小說的 성격」, 『고전문학과 교육』 14,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8.

이재영, 「<옹고집전>의 이데올로기 재현 전략과 '길들이기'」, 『國際語文』40, 국제어문학회, 2007.8.

임치균,「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12.

장예준, 「<앵구목송와갈선생전(鶯鳩鶩訟臥渴先生傳)>의 풍자양상과 작가의식」, 『韓國古典硏究』 16, 韓國古典硏究學會, 2007.6.

정충권, 「<江都夢遊錄>에 나타난 역사적 상처와 형상화 방식」, 『한국문학논총』 45, 한국문학회, 2007.4.

조광국,「<유씨삼대록>의 가문창달 재론 :전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4.

최천집,「「호질」에 나타난 이상 사회에 대한 추구 경향」, 『어문논총』46,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6.

허원기,「외로운 여성 권력자의 초상 :고후전(高后傳) 연구」, 『藏書閣』 1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6.

모티프, 소재

강명관,「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식욕과 판타지」,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12.

경일남,「고전소설에 나타난 科題의 양상과 문학적 의미 ,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12.

경일남,「고전소설의 해몽 수용양상과 활용기법」, 『어문연구』 53, 語文硏究學會, 2007.4.

김미령,「서사작품에 나타난 애정모티프의 변화양상과 현실대응방식-<수삽석남>, <이생규장전>, <주생전>을 주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

www.kci.go.kr

학회, 2007.3.
김용기, 「고소설 인물 출생담의 기능과 의미 고찰 :영웅소설, 애정소설을 중심으로」, 『語文論集』 제36집, 中央語文學會, 2007.
김종군, 「고소설 유형의 형성과 변이 양상-남녀결연서사를 중심으로-」, 『語文硏究』 54, 語文硏究學會, 2007.8.
류준경, 「춘향전의 눈물, 그 의미와 변화의 궤적」, 『국문학연구』 15, 국문학연구회, 2007.5.
백민정,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고독'과 '사랑'의 심리학적 이해와 문학적 의미」,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12.
서지영, 「규범과 욕망의 틈새 :조선시대 소설 속의 섹슈얼리티」, 『韓國古典硏究』 15, 韓國古典硏究學會, 2007.6.
윤승준, 한중 우언의 동물 상징」, 『동방학지』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3.
윤채근, 「『포의교집』에 나타난 근대적 욕망 구조 -안티고네적 희생과 히스테리 사이-」, 『청람어문교육』 35, 청람어문교육학회, 2007.6.
전성운, 「<수성지(愁城誌)>에 나타난 '시름'[愁]의 정체 , 『語文硏究』 54, 어문연구학회 2007.8.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6.
정환국, 「'楚玉'과 '옹녀' ,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12.
조재현, 「古典小說에 나타나는 저승계 硏究 :閻羅大王의 地獄과 后土夫人의 冥司界를 중심으로」, 『語文硏究』 통권134호, 韓國語文敎育硏究會, 2007.6.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의 여성 재현-공감과 불화의 재현 양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6.
최수현, 「<현몽쌍룡기>에 나타난 친정/처가의 형상화 방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12.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6.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6.

소설과 문학 치료

서은아, 「〈장화홍련〉 이야기의 문학치료적 효용 , 『문학치료연구』 7,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8.

www.kci.go.kr

이강옥,「문학 치료 텍스트로서의 <구운몽>의 가치와 가능성-우울증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이민희,「심리 치료 측면에서 본 <민옹전(閔翁傳)> 소고(小考)」,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6.
임치균, 고전소설에 드러난 부부 갈등에 대한 정서적 대응」, 『문학치료연구』 7,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8.
최혜진,「<이춘풍전>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해결 방식과 문학치료적 효용 ,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12.

비교문학

강지현,「韓日近世大衆小說樣式의 비교연구 :방각본소설과 에도희작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27,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7.
김옥란,「『夢遊錄』과 唐 傳奇의 비교연구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2, 한중인문학회, 2007.12.
박연정, 「한일 고전 여성소설 비교연구 가능성에 대하여 :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日本學報』70, 한국일본학회, 2007.3.
서여명, 「한·중 『서사건국지』에 대한 비교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12.
유인순,「<옥루몽>에서 퍼 올리는 재미의 낯익음-<삼국지>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2, 한중인문학회, 2007.12.
이승수,「『삼한습유(三韓拾遺)』의 공간과 주제 -『서유기(西遊記)』와의 대비를 겸하여- ,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6.
이화, 「수절문화 변천의 시대적 요소 :명·청과 조선시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20, 한중인문학회, 2007.4.
장연호, 「<장화홍련전>과 <李玉英獄中訟寃>의 比較硏究」, 『韓國文學論叢』 46, 한국문학회, 2007.8.
조재현,「<왕시전>과 『태평광기(太平廣記)』 소재 <무쌍전(無雙傳)>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6.

소설의 현대화, 문화콘텐츠

권순긍,「고전소설의 영화화」,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김태연,「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영웅서사의 현대적 변용 , 『어문연구』 53, 語文硏究學會, 2007.4.
심치열,「고전소설을 수용한 장편 애니메이션-<왕후 심청> 스크립트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www.kci.go.kr

윤종선, 우화 소설의 현대적 활용 방안 -<두껍전>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42, 국어문학회, 2007.6.
이영호,「〈허생전〉의 교재화 방안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2.
이정원,「해학적 악인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서사적 접근」,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조상우,「<포의교집>과 <아내가 결혼했다>의 스토리텔링 비교 연구 :남녀 주인공 의식의 수용과 변이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硏究』 28, 동양고전학회, 2007.9.

기타

중국소설, 번역소설

김영,「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한글 필사본『남송연의』에 대하여」, 『중국소설논총』 25, 한국중국소설학회, 2007.3.
민관동,「中國 愛情類 小說의 國內流入과 板本硏究 , 『중국소설논총』 25, 한국중국소설학회, 2007.3.
양승민, 「<遼海丹忠錄>을 통해 본 명청교체기의 중국과 조선」, 『고전과 해석』2,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7.4.
양승민,「중국 禁書小說 속의 명청교체기 朝鮮」,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이승수, 『수호전(水滸傳)』 임충(林沖) 서사의 김성탄(金聖嘆) 독법(讀法) , 『한국한문학연구』 40, 한국한문학회, 2007.12.
이승수,「『수호전』 武松 評에 나타난 김성탄의 비평의식」,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이은봉,「구활자본 <제갈량전>의 창작 양상 연구 ,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소장 한글번역필사본 《츈츄녈국지》(17권17책)에 대하여」, 『중국소설논총』 26, 한국중국소설학회, 2007.9.
이재홍,「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 소재 한글번역필사본 唐傳奇에 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45,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8.
이재홍,「한글 번역 필사본 『수상신주광복지연의』에 대하여」, 『중국어문학논집』 42, 中國語文學硏究會, 2007.2.
정민경, 한글필사본 『삼국지』의 번역양상과 어휘특징」, 『중국소설논총』 25, 한국중국소설학회, 2007.3.

www.kci.go.kr

정영호,「《鏡花緣》과 한글 역본 《第一奇諺》의 비교 연구」, 『중국소설논총』 26, 한국중국소설학회, 2007.9.

유통

김재웅,「경북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실증적 연구」,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김진영,「古典小說의 流通과 口演 事例 考察 :영동군 학산면 민옥순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12.

소설과 인접 장르

권도경,「고·당 전쟁문학 「설인귀전」과 설인귀 전설의 내용적 상관관계에 관한 비교 고찰」, 『東洋古典硏究』 26, 동양고전학회, 2007.3.

김진영,「佛敎敍事의 作話方式과 傳奇小說의 相關性(Ⅰ)」, 『어문연구』 53, 語文硏究學會, 2007.4.

민영대,「삼생옥초화전과 우리 민속 , 『어문연구』 53, 語文硏究學會, 2007.4.

유광수,「'쥐 변신 설화'의 소설적 적용과 원천소재 활용 양상」,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윤보윤, 「《천예록》과 고전소설의 대비적 고찰 :〈어사건괵등연상〉·〈제독라정출궤중〉과 〈배비장전〉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통권71호, 忠南大學校人文科學硏究所, 2007.

이정원, 「판소리 문학에서 삼강행실도의 수용양상」『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6.

문체 연구

김문희,「<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6.

작가와 독자

김풍기,「潭樵 南永魯의 생애와 『玉樓夢』에 반영된 사유 , 『한국인물사연구』 8, 한국인물사연구소, 2007.9.

서정민, 「삼강명행록」을 통해 본 여성의 성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6.

안민정,「拙修齋 趙聖期論」, 『東洋古典硏究』 27, 동양고전학회, 2007.6.

장시광,「조선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東洋古典硏究』 29, 동양고전학회, 2007.12.

www.kci.go.kr

장시광,「〈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東洋古典硏究』 27, 東洋古典學會, 2007.6.

형상화 방식, 미학

오세정,「금오신화』에 나타난 현실세계와 상상세계의 교섭양상과 의미」,『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문학회, 2007.9.

이상구, 「구운몽』의 형상화 방식과 소설미학」,『南冥學硏究』24, 남명학회, 2007.12.

조도현,「〈주생전〉의 현실지향과 미학적 특질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12.

공간과 시간

손기광,「〈심청전〉의 空間 問題와 理念의 機能 ,『어문학』 95, 한국어문학회, 2007.3.

신태수,「『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韓民族語文學』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12.

지연숙,「<숙향전>의 세계 형상과 작동 원리 연구」,『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탁원정,「<장화홍련전>의 서사 공간 연구 -박인수본, 신암본, 자암본을 대상으로-」,『고전문학연구』 31, 한국고전문학회, 2007.6.

소설사

소인호, 「고소설사 기술에 있어서 '최초주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우리문학연구』21, 우리문학회, 2007.2.

장경남, 「壬·丙 兩亂과 17세기 小說史」,『우리문학연구』21, 우리어문학회, 2007.2.

서사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한담적 대화 양상과 기능」,『韓國古典硏究』 16, 韓國古典硏究學會, 2007.12.

이영지, 「〈남궁선생전〉의 서사적 성격」,『경상어문』 13, 경상어문학회, 2007.

세계관

김창현,「「梁山璹傳」의 비극성 연구-조선시대 상층영웅비극의 미학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溫知論叢』 16, 온지학회, 2007.5.

www.kci.go.kr

신태수,「對稱的 世界觀의 敍事 傳統과 初期古小說의 向方 , 『어문학』 95, 한국어문학회, 2007.3.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 16, 국문학연구회, 2007.11.
정길수,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화주의'」, 『국문학연구』 15, 국문학연구회, 2007.5.

인물
신해진, 〈柳淵傳〉의 惡人 형상과 그 행방」, 『語文硏究』 54, 語文硏究學會, 2007.8.
이현국,「〈춘향전〉에 나타난 춘향의 신분적 특징과 구조적 기능 ,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2007.6.
한의숭,「<삼해지(三海誌)>의 인물형상 연구 :재자가인소설(才子佳人小說)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8.
윤채근,「『포의교집』에 나타난 근대적 욕망 구조 -안티고네적 희생과 히스테리 사이-」,『청람어문교육』35, 청람어문교육학회, 2007.6.

갈등
김윤영, 「朝鮮朝 家庭小說에 나타난 個人間의 葛藤樣相」, 『溫知論叢』 17, 溫知學會, 2007.9.
최윤희,「 <홍백화전>의 갈등의 실체와 소설사적 의미」, 『東洋古典硏究』28, 東洋古典學會, 2007.9.

해제
신해진,「<한당유사(漢唐遺事)> 해제 및 고소설비평자료 역주 -서(序),범예(凡例), 독방(讀方)-」, 『어문논총』 46, 한국문학언어학회, 2007.6.

연구사
이현식,「『연암소설연구』의 선행 연구 영향에 관한 고찰」, 『東方學志』 13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3.
허순우,「전기소설(傳奇小說)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6.

김일렬,「〈속사씨남정기〉 연구」,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2007.6.

www.kci.go.kr

김현주, 「고소설에서 "기운생동(氣韻生動)"의 구현 양상 -산수화 원리의 고소설 구도로의 전화(轉化)에 대한 시론적 접근」, 『韓國古典硏究』15, 韓國古典硏究學會, 2007.6.
설중환, 「〈전우치전〉의 한사상적 연구」,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2007.12.
유정일, 「<부설전>의 전기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미」, 『東洋古典硏究』26, 東洋古典學會, 2007.3.
육재용, 「〈배비장전〉 신고찰 , 『韓民族語文學』 50, 한민족어문학회, 2007.6.
이승수, 「김영철전」의 갈래와 독법 :홍세태의 작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30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여름.
이은봉, 「완판 <공명선생실기>의 소설사적 의미」, 『東아시아古代學』16, 東아시아古代學會, 2007.12.

정선희, 「고전 서사문학 영역(英譯)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韓國古典硏究』 16, 韓國古典硏究學會, 2007.12.
정인혁, 「〈검승전(劒僧傳)〉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韓國古典硏究』16, 韓國古典硏究學會, 2007.12.
정학성, 「「호질(虎叱)」에 대한 재성찰」, 『한국한문학연구』 40, 한국한문학회, 2007.12.
조도현, 「〈유연전〉의 문학적 특성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통권70호, 忠南大學校人文科學硏究所, 2007.
최웅권, 숭욕억리(崇慾抑理)의 암울한 정감세계 ,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최지녀, 「<열녀함양박씨전> 연구」, 『국문학연구』16, 국문학연구회, 2007.11.
권혁래, 「16·17세기 동아시아적 경험과 기억으로서의 일본인 형상 -조선후기 역사소설을 대상으로」, 『열상고전연구』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5. 새 자료

곽정식, 「새로 발굴한 고소설 〈雲水誌〉 연구」, 『韓國文學論叢』 46, 한국문학회, 2007.8.
김정녀, 「신 자료 <靜窩記夢>의 작자와 우의적 성격」, 『고소설연구』 24, 한국고소설학회, 2007.12.
류준경, 「미발표 한문소설 「宗生傳」에 대하여 :전기소설적 특성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硏究』 40, 한국한문학회, 2007.12.
서정민, 「<원촉지> 창작의 동인과 특징적 양상」, 『한국문화연구』 12, 이화여자

www.kci.go.kr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6.
신해진, 「〈角觝少年傳〉 해제 및 역주」, 『韓國文學論叢』 46, 한국문학회, 2007.8.
정병호, 「한문소설(漢文小說) 「유오승기(柳五乘記)」 해제(解題) 및 역주(譯註)」, 『嶺南學』 12,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12.
차충환, 「「楊門忠義錄」의 梗槪와 作品 性格」, 『語文硏究』 통권135호, 韓國語文敎育硏究會, 2007.9.

www.kci.go.kr